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동 정

◆ **최중락** 회원 (경찰청 수사연구관)

최 회원은 최근 자신이 상근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에스원 이우희 사장과 함께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고 울산 플랜트 노조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원 전의경들에게 위문금 5백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전경수** 회원 (한국마약범죄학회장)

전 회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당 김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유엔마약범죄기구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입법 공청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한편 祝辭를 가졌다.

◆ **성환복** 회원 (부산경우회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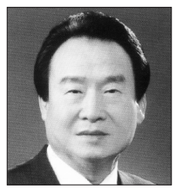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경신학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퇴계학 국제학회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 **황현주** 경장 (청주 동부서)

황 경장은 여경의 날을 맞아 경찰청이 선정한 제2회 '다모대상'을 수상했다.

인기 TV드라마로 익숙해진 '다모'는 조선시대 여성 경찰을 일컫는 말로, 다모대상은 올해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여경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이다. 황 경장은 2004년 5월부터 1년간 강력범과 성폭력·성매매 사범 등 총 5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시키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 **김영환** 회원 (前 경무관)



김 회원은 요즈음 일선 경찰서에서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범죄수사」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특강을 갖고 있다.

충북 음성과 경기 파주서장을 역임한 후 퇴임한 김 회원은 대전 배재대학 법무대학원에서 경찰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경희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사)충청 경제사회 연구원장과 배재대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소변경

◆ **경북김천 경우회**
경북 김천시 평화동 6번지
(주)현대 항공여행사내
☎ 054-434-8151

◆ **조광훈** 회원
서울 도봉구 방학동 344-14호
☎ 02-6406-0642

◆ **이병모** 회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8-4호
토미빌 103동 201호
☎ 02-518-1426

결 혼

◆ **박금성** 회원 (前 서울경찰청장)의 장녀 자미양이 지난 6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 **강신덕** 회원 (前 총경)의 아들 철석 군이 지난 6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 웨딩홀에서

◆ **김종원** 회원 (前 총경)의 장남 용식 군이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동 성당」에서

◆ **전판용** 회원 (前 경무관)의 장녀 유리양이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로얄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 **김기수** 회원 (前 총경)의 장녀 은희 양이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 목화 웨딩홀에서

◆ **권영섭** 총경 (성남 중부서장)의 장남 오덕 군이 지난 6월 19일 일요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강남 군인공제회관 밀레니엄 웨딩 홀에서

牧民會 정기 모임 개최

현직 시절 경찰청 특수대에 근무했던 警友들의 모임인 牧民會(회장 현성일)는 지난 6월 9일 오후 6시 경우회 중앙회 사랑방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會의 발전과 회원 친목도모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중앙경찰학교장 이한선 치안감
제주경찰청장 류정선 경무관

이한선 치안감

류정선 경무관

경찰청은 최근 서영호 전 치안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중앙경찰학교장에 이한선 치안감을 임명하는 한편 직위해제된 김인옥 전 제주경찰청장 후임으로 류정선(57) 경북경찰청 차장을 발령했다.

이 치안감은 2002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시 모 사립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사건 관련 수사정보 유출 및 주식투자 비리 혐의 등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를 받고 해임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류 신임 제주청장은 부산경찰청 경비과장과 경찰청 보안 1·2·4과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차장, 경찰대 교수부장 등을 거쳤다.

신간소개

관서운영경비 매뉴얼

— 경찰청 경리계

경찰청 경리계가 최근 관서운영경비 매뉴얼을 발간 배부했다.

관서운영경비를 처음 취급하는 출납공무원이라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로 발간된 이 책자는 제 1장에 관서운영경비 출납관리 업무의 개요와 업무처리의 흐름·관계법령을 싣고 있다.

또한 제 2장에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사용방법을 출납공무원이 따라할 수 있도록 도표와 함께 기술하고, 제 3장에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서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과 함께 해설을 하였고, 제 4장에 부록으로 관서 운영경비 업무처리와 관계되는 재정경제부 지침 및 회계예규를 수록했다.

정용광 경리계장은 『이번 관서운영경비 출납 공무원 실무지침서의 발간배부는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금년도 전국 경리요원 순회교양 교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인사

임 명

- ♦ 총무부장 **이규준**
- ♦ 홍보부장 **민경우**
- ♦ 경리부장 **김 진**
- ♦ 사업부장 **김구종**

정년퇴직

- ♦ 홍보부장 **권호영**
- ♦ 사업부장 **조동정**

詩

오월에 핀 꽃

- 제18대 警友會長 취임을 축하하며

전화수
(시인, 작사가)

싱그러운 오월은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축제의 달입니다

인의예지 덕성을 갖추어
배려하는 친절로
멀어도 가까이 있는 향기로
아우르 보듬는
호연지기 지도자
그대 가슴 따뜻하여
영광의 꽃이 피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햇살로 뭉쳐진 경우
저 하늘 태양처럼 가슴 뜨겁게
그리움의 향기 가슴에 고여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언제나 다정하게 다가서는 우정

오월의 신록처럼
푸른 사랑 푸른 마음 한데 모아
손에 손잡고 노래부르면
사랑의 울림으로
평화의 울림으로
오월에 핀 아름다운 꽃
영원히 빛나리

專門醫에 듣는다

정력제의 허와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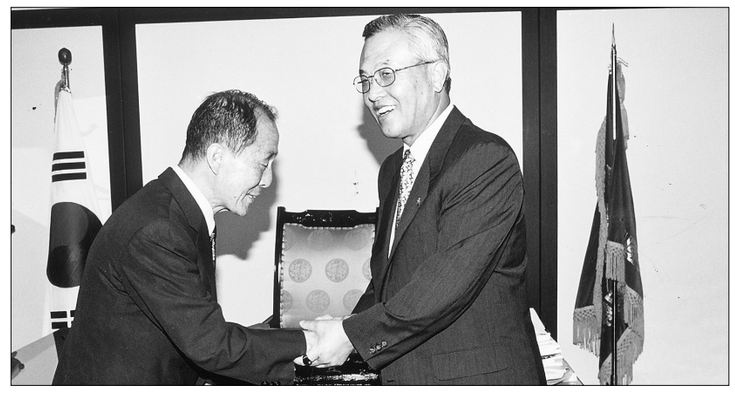
김제종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몸에 좋다는 것이면 무언들 못 먹겠냐는 말처럼 인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의미속에는 삶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내포되어 있다. 예로부터 일대를 풍미하였던 영웅들의 이야기속에는 항상 절세가인이 등장하였기에 그들은 뭇 남성들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었다. 하지만 진시황이나 나폴레옹 등의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들도 나이가 들면서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력제나 강정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속에는 수많은 강정제가 소개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런 종류의 약들은 지금도 특히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으며 화교권의 동남아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파와 달걀, 꿀, 조개 및 달팽이 등을 정력제로 여겼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녹용이나 인삼, 해구신, 보신탕 및 뱀탕 등이 애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제들의 효과에 대해 분명한 판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약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효과에 대한 반응 또한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약제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그 성분이나 작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중에는 막연히 의사는 잘 아프지 않을 것이라거나, 특별한 약이나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잘 아프지 않는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상 의사가 아프면 환자를 볼 수가 없고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미리 휴식을 취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뿐이다. 또한 비뇨기과 의사는 정력이 좋거나 성생활의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필자의 경우도 동창회 등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의례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게 된다. 물론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만 비방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답을 하면 오히려 무언가를 감춘다고들 생각한다. 필자의 동료 중 한 사람은 개들이 꼬리를 감출만큼 개고기를 즐기며 왕성한 정력을 자랑하고 다닌다. 우연히 그의 부인에게서 개고기와 정력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었는데 대답은 '별 볼일 없데요.' 이었다.

전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인의 해외보신여행은 국가적인 망신임에 틀림없다. 대부분의 강정제의 성분은 남성호르몬제와 노화방지효과가 있는 비타민제 및 최음제, 인삼이나 녹용과 같은 각국 고유의 민방약제들이며, 단순히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정효과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효과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제로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으나 반면에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탐닉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강한 성생활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므로 원인 모를 피로나 체중감소로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은 이러한 정력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나친 스트레스나 과로로 지친 사람은 휴식이 가장 큰 피로회복제이며, 규칙적인 체력단련과 올바른 식생활, 사랑이 담긴 성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정력제이다.



경우신문 논설위원에 전창식 회원 위촉 구홍일 재향경우회장은 6월 17일 오전 12시 경우신문 논설위원에 전창식 회원(극작가, 청주동부경우회장)을 위촉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전창식 논설위원은 대전일보와 충청일보 논설위원, 한국방송작가협회 중견작가로서 활동했으며, 월간 충청 발행인 겸 편집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홍순선 경우신문 前 차장 사진 전시회 개최

오는 1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에서

25년 동안 경우신문에서 사진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홍순선씨가 오는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에서 「사진으로 보는 세종문화회관 공연기록 예술 사진전」을 개최한다.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테잎컷팅으로 시작되는 이번 전시회는 약 15년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진을 촬영해 자료로 보관했던 필름 24만컷과 프로그램 8백여점으로 그가 세종문화회관에 기증한 작품중 대표적인 것만 발췌한 것이다. (연락처 011-284-9937)

퇴직을 앞둔 경찰동지에게 알려 드립니다

▧ 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거주지 관할 경우회 지역회(대부분 경찰서 청사내 위치)또는 본인이 원하는 관할 지역회에 회원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당시 근무관서장 발행)과 명함판 사진 1매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회비는 년간 12,000원이며 2년분 회비를 납부하면 2년간 유효한 회원증을 발급함
- 다만 평생회원증은 회비가 200,000원임, 신청용지는 시도회·지역회에 비치되어 있음

▧ 경우신문 구독

- 구독신청은 경우회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 등에 전화로 구독 신청을 하면 자택(직장)으로 우송해 드리며, 구독료는 년 1회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지로용지(송금자 성명 명기)에 의거 구독료를 납부하면 됨
- 구독료 : 연간구독료 - 1만원
  평생구독료 - 10만원(80세 이상은 무료, 70세 이상 80세 이하는 5만원, 65세 이상 70세 이하는 7만원, 65세이하 10만원)

※ 입금계좌 (우체국 : 012468-015119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문의전화 : 02-2234-1881

▧ 무궁화회(골프모임)가입— 10년 이상 재직하고 회원등록 필한 자에 한함

- 무궁화회 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 당시 근무 관서장 발행)첨부
  경우회 중앙회에 입회비(500,000원), 년회비(200,000원)와 함께 제출하면 경우회가 주주로 되어 공동경영하는 기흥골프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소재 36홀 규모)의 회원자격으로 월1회(매월 세번째 월요일 06:00~07:00)이용할 수 있음
- 입회비 입금 계좌번호 : 제일은행 276-20-108132 현성일
※ 입회비 납부시는 납부사실을 경우회 중앙회 총무부장에 연락바람
- 등록신청서 용지는 경우회 중앙회(총무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전화가입 신청하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신청용지를 우송해 드림
- 등록신청서 제출시는 명함판 1매,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우회원증 사본 1부 첨부
- 부킹은 매월 1일~3일까지 09:00부터 경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킹메뉴를 클릭 신청〈문의전화 : 02)2234-1881〉

▧ 경우산악회 가입

- 입회비 30,000원(연회비 30,000원)을 경우산악회 총무에게 산악등산일에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면 됨
- 산행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행 예정지 등은 사전에 통지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